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도시와 지방의 비교*

A Study on the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현은민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Eun Min Hyu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solidarity and locus of control on the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433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higher family solidarity, the higher would be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2. Internally oriented elderly tended to have a high level of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3. Family solidar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for nonmetropolitan elderly in resource-scarce situations.
4. Locus of control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for metropolitan elderly in resource-affluent situations.
5.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was positively affected by family solidarity and locus of control for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6. Family solidarity was found to affect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directly and also indirectly by enhancing locus of control for the whole and metropolitan elderly.

* 본 논문은 1995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7. Family solidarity and locus of control had only direct effects on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for nonmetropolitan elderly.

I. 서론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어 가고 있고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의 퇴화, 역할 상실, 자유로운 환경 통제의 곤란, 그리고 경제적 빈곤등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은 한국 노인이 당면한 3대 문제 중의 하나이며 노인 세대의 급증과 함께 사회적 빈곤층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구자순, 1988). 게다가 조기 정년제의 실시 및 노후 보장 제도 미비 등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80%에 달하고 있으며(구자순, 1988) 이는 세대간에 긴장을 증가시키고 부모 자신의 노화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노년기 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Andrews & Withey (1976)도 인간의 주관적 가치인 가정의 경제적 복지가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삶의 조건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빈곤은 노령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박재간, 1983) 노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이 어떻게 지각되며 어떤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밝히는 것이 노년기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복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 환경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객관적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개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Strumpel, 1973).

경제 생활 만족도나 재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도시주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연구는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계 소득이나 가계 관리와 같은 객관적인 사회 경

제적 자원을 주로 고려하였으므로 가치를 반영하는 가족 관계와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주관적 질적 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가족과 자녀로 나타나고 있고(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1984)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실에 직면하여 노인의 내적 통제 능력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노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이 가족 소득이나 직업 등의 객관적 조건보다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인 가족 관계와 내적 통제 능력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의 기능으로 대표되는 가족 결속도와 또한 가정 환경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진 개인의 인지적 성격 특성인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가족 결속도와 내적 통제 능력은 부족한 자원을 보상하여 경제적 복지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도시 노인과 지방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복지감의 개념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하며 행복한 상태 혹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한다(이승신의, 1996). 경제적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적정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Walson & Fitzsimmons, 1993) 객관적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등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경제적 복지가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화폐측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고 한 Pigou(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

다. Weckstein(1962)는 경제적 복지를 최소한 자원에 의해 충족된 욕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Fowler(1972)는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 보다는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한다고 하였다. Davis와 Helmick(1983), Strumpel(1973)도 객관적인 경제상태보다 경제상태에 대한 개인의 시각이 경제적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경제적 복지는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와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경제적 복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이승신의, 1996) 여러연구에서 경제적 복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 변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주관적인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Yuen, 1976; Ackerman & Paolucci, 1983; Davis & Helmick, 1983; Dillard, 1987) 주관적 변인과 객관적 변인을 함께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Winter, Bivens & Morris, 1984).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 복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Yuen(1976)은 경제적 복지의 하나인 가계소득 적정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Williams, Nall, Deck(1984)은 소득적정도와 재정문제곤경도를 Liang & Fairchild(1979), Diener(1984)는 상대적 박탈감과 재정만족도를 제시했으며 Michalos(1983)와 김숙이(1988)의 연구에서는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 상승감을 선정하였으며 이승신의(1996)는 자원의 적정성, 안정성, 평등성(경제적 불평등 정도)의 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영애(1994)는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순자산의 결합을 제시하였다.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에 의하면 만족도는 현재상태에 대한 개인의 안정되고 일반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관적 복지개념을 잘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여러연구에서 만족도를 복지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Ling, Kahana &

Doherty, 1980; Strumpel, 1973; Fletchher & Lorenz,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적복지감의 구성요소로 소득적정도와 경제적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 내외통제성의 개념

최근 노년학 연구에서 내외통제성의 개념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Cicirelli, 1980; Lefcount, 1976; Ziegler & Reid, 1983). 노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부모역할의 감소 등은 노인에게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에 대하여 노인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며 대처하는가가 노후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성격특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자원으로써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Krause, 1986) 여러연구에서 내외통제성이 노후적응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Crandall, 1965; Lefcourt, 1979; Morwichi & Strickland, 1973; Rotter, 1966).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느냐 또는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운명이나, 우연, 그리고 개인적 통제를 넘어선 외부적인 힘에 돌리느냐에 따라 내적통제와 외적통제로 나뉘어진다(Rotter, 1966). Rotter(1966)은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주관적 목표나 강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강화를 얻으리라는 기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하였다. 내외통제성이란 이러한 강화에 의한 기대변인중의 하나로서 개인은 과거 여러 상황에서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행동과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하여 내적 혹은 외적 통제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통제성은 자아개념, 책임성, 적응성, 목표성취 등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에 내적통제성향의 개인이 인생만족도가 높고(Palmore & Luikart, 1972) 노화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k & Kurtz, 1975). 내외통제성과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서 Baker(1976),

Kivett(1976)은 내적통제신념을 가진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높고 자아성취감 유지와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정혜(1990)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노인이 건강, 소외, 의존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하였고 지연경, 조병은(1991)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가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의 역할을 조사한 Krause(1986)는 내적통제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죄의식이나 자기비난과 같은 비효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어떤 스트레스원은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밝힌 김현화와 조병은(1992)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 성격의 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결속도의 개념

결속도 개념은 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유래되어 집단 또는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Olson, Sprenkle & Russel(1976)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 즉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족결속력 이라고 하였다.

가족의 결속력은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 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기에 보다 원만히 대처하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태현, 1994). 가족결속도의 틀은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82)에 의해 발달되었으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정도는 비슷한 가치관,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응집성의 측면에서 가족결속도의 개념을 구조적결속, 접촉적결속, 애정적 결속, 가치관일치의 결속, 기능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으로 분류하였다. 구조적 결속은 가족구조의 특징으로서 자녀수, 자녀와의 거주거리, 가구의 구성을 말하며 접촉적 결속은 세대간의 접촉량이나 행동의 양을 나타낸다. 애정적 결속은 부모자녀간의 질적인 관계, 가까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기능적 결속도는 노부모가 갖고 있는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을 말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에 관한 조병은(1990)의 연구에서 구조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었으며 상류층 부모가 저소득층 부모에 의해 접촉적 결속도와 애정적 결속도 그리고 기능적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녀들과 가치적 결속이 크며 노부모의 인생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결속도로 나타났다. Quinn(1983)의 연구에서 노부모와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 일치 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treib & Beck(1980)은 노후생활에서 성인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4.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

Rotter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강화의 역사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강화의 기대는 오랜시간에 걸쳐 발달되므로 개인의 성격은 가족환경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가족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태현, 1994).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필수적인 부양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부양체제로서 기능한다.

Bengtson과 Cutler(1976)는 가족결속력이나 응집력의 세가지 요소로 가족구성원의 상호교류와 애정과 신뢰, 그리고 가치나 신념의 일치를 꼽았다. 이 세가지 요소가 긍정적인 가족일수록 가족상호작용에서 보상이 크고 노년기에 내적통제성향이 유지 및 발달된다고 하였다. Cicirelli(1980)는 가족들간에 가까울수록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킬려고 노력하므로 상호 호혜적인 가족관계는 내적통제성향의 발달로 이끈다고 하였다. Cicirelli(1980)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결속도와 형제간의 결속도가 내외통제성의 예측변수였으며 결속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결속도는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노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

켜 자긍심과 통제능력을 향상시킨다.

5.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

Bauer와 Hogan(1987)에 의하면 소득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개인과 가족이 그들의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며 경제적 형편이 더 낫다고 하였으며 경제적 복지감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재정적정도가 실제소득보다 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의 영향력있는 지표라고 본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원관리행동, 내외통제성, 그리고 소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가족 자원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연구한 Ness와 Williams(1991)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리행동이 내외통제성을 매개로 하여 소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내적통제성향의 응답자가 소비만족도가 높은것을 발견하였다.

소득적정도와 내외통제성과 재정상황의 변화의도의 인과모형에 대해 연구한 Danes, Rettig과 Bauer(1991)에 의하면 소득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생활의 여러측면에서 내적통제성향이 강했으며 내적통제성이 강한 응답자가 그들의 재정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Danes(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수와 직업, 수입이 내외통제성을 통하여 생활수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가정의 내외통제성과 소득적정도 그리고 재정상황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에서도 외적통제자보다 내적통제자가 소득적정도를 더 높게 인식했으며 재정상황에 더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족결속도와 경제적 복지감

노인부양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여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서병숙(1993)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류가 많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만족도와 정서적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Medley(1976)와

Quinn(198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만족도는 자녀와의 유대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1990)의 저소득층 노인 연구에서 가족결속도가 낮은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빈곤생활을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체념하고 오히려 가족간의 결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정서적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노인의 사회심리적 환경요인으로서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은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보다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더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련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대도시 노인과 지방 노인간에 인과관계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각 400명씩 총 8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질 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대도시는 서울과 대구를 조사하였으며 지방은 안동, 영주, 예천, 점촌, 청송, 포항, 속초, 태백, 문경, 풍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95년 12월에서 96년 4월에 걸쳐 조사했으며 먼저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포	전체(N=433)		대도시(N=137)		지방(N=296)	
		N	(%)	N	(%)	N	(%)
성별	남	212	(49)	65	(47)	147	(50)
	여	221	(51)	72	(53)	149	(50)
연령	60-69세	241	(56)	84	(62)	157	(53)
	70-79세	139	(32)	43	(31)	96	(33)
	80세 이상	53	(12)	10	(7)	43	(14)
	M	M = 69.5		M = 68.1		M = 70.3	
자녀수	1-2명	51	(12)	21	(15)	30	(10)
	3-4명	173	(40)	81	(60)	92	(32)
	5명 이상	206	(48)	35	(25)	174	(58)
	무응답	3	(1)				
	M	M = 4.5		M = 3.9		M = 4.8	
가족형태	혼자 산다	55	(13)	13	(10)	42	(14)
	부부만 산다	155	(36)	51	(37)	104	(35)
	장남부부	95	(22)	22	(16)	73	(25)
	차남이하 부부	46	(11)	18	(13)	28	(10)
	딸부부	10	(2)	4	(3)	6	(2)
	미혼자녀	51	(12)	26	(19)	25	(8)
기타	21	(4)	3	(2)	18	(6)	
배우자유무	배우자가 있다	249	(58)	79	(58)	170	(58)
	사별했다	175	(40)	56	(41)	119	(40)
	이혼 또는 별거했다	7	(2)	1	(1)	6	(2)
	무응답	2	(1)				
교육수준	무학	170	(39)	29	(21)	141	(48)
	국졸	114	(26)	22	(16)	92	(31)
	중졸	52	(12)	20	(15)	32	(10)
	고졸	58	(13)	38	(28)	20	(7)
	대졸	35	(8)	27	(20)	8	(3)
	대학원 이상	1	(1)	1	(1)	0	(0)
	무응답	3	(1)			3	(1)
소득	50만원 이하	190	(44)	35	(25)	155	(52)
	50-80만원	44	(10)	9	(7)	35	(12)
	80-100만원	47	(11)	17	(12)	30	(10)
	100-150만원	58	(13)	23	(17)	35	(12)
	150-200만원	52	(12)	30	(22)	22	(8)
	200만원 이상	37	(8)	20	(15)	17	(6)
	무응답	5	(2)	3	(2)	2	(1)
	M	M=50-80만원		M=80-100만원		M=50-80만원	
직업유무	있다	127	(29)	28	(20)	99	(33)
	없다	305	(70)	108	(79)	197	(67)
	무응답	1	(1)	1	(1)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8	(16)	33	(24)	35	(12)
	대체로 건강하다	217	(50)	64	(47)	153	(52)
	건강하지 못하다	131	(30)	36	(26)	95	(32)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하다	17	(4)	4	(3)	13	(4)
종교	무교	148	(34)	34	(25)	114	(39)
	불교	190	(44)	56	(41)	134	(45)
	기독교	54	(13)	23	(17)	31	(10)
	천주교	32	(7)	23	(17)	9	(3)
	기타	9	(2)	1	(1)	8	(3)

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850부가 배포되었으나 52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2%로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노인이거나 부실자료를 제외한 43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측정도구

1) 경제적 복지감

경제적 복지감은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를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 척도는 미국의 NC-128 '농촌가족의 경제적 복지감 결정요인으로써의 가족자원활용' 연구 project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소득적정도는 현재수입이 생활에 어느정도 충분한가의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이며 경제적 만족도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물질, 긴급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까지 5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노인의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1$ 이었으며 지방노인은 $\alpha = .89$ 로 나타났다.

2)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 척도는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에서 완전히 통제한다까지 7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단일문항의 공인 타당도는 Rotter의 내외통제성 척도와 상관계수 $r = .35$ ($p < .01$)로 나타났다.

3) 가족결속도

가족결속도는 Bengtson & Schrader(1982)의 연구를 기초로 한 조병은(1990)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노부모와 자녀간의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과 가치적 결속을 나타내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5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다. 대도시 노인의 가족결속도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5$ 로 나타났으며 지방 노인의 신뢰도는 $\alpha = .91$ 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령, 성별, 자녀수, 배우자유무, 가족형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 종교,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상태는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음을 나타낸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백분율,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LISREL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 점수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t-test한 결과<표 2> 가족결속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적정도($t = -4.67, p < .001$)와 경제적 만족도($t = -7.08, p < .001$) 모두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Bowlby(1979)에 의하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주기 전반에 걸쳐서 기대감이나 보호적 행동양식과 더불어 지속된다고 하였다. 노부모와 자녀간에 결속도가 높을수록 상호교류나 유대감이 높고 노화에 따라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부모의 요구나 부양기대감을 충족시킬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병승(1993)의 연구에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류가 많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만족도와 정서적 만족도와와의 관계

〈표 2〉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경제적 복지감

	구분	N	경제적 복지감			
			소득적정도	T값	경제적 만족도	T값
가족결속도	높은집단	229	2.80	-4.67***	12.30	-7.08***
	낮은집단	203	2.30		10.22	
내외통제성	내적통제집단	185	2.81	-3.99***	12.12	-4.66***
	외적통제집단	248	2.38		10.70	

*** P < .001

가 높게 나타났다.

내외통제성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적통제성향의 노인보다 내적통제성이 강한 노인집단에서 소득적정도와($t = -3.99, p < .001$) 경제적 만족도($t = -4.66, p < .001$)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내적통제성향의 개인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 욕구,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활용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으로 경제적 복지감을 높여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an Raaij(1981)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특성과 경제환경이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anes, Rettig과 Bauer(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적정도가 높은 응답자가 내적통제성향이 강했으며 재정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marwan과 Hira(1993)는 내외통제성은 소득적정도

에 직접효과와 재정만족도에 소득적정도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2. 대도시 노인과 지방 노인의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계

자원이 많은 노인과 자원이 적은 노인의 구분 기준으로써 대도시 노인과 지방 노인의 평균소득을 사용하였다. 대도시노인의 평균소득(80만원-100만원)이 지방 노인의 평균소득(50만원-8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소득 이상의 노인을 자원이 많은 노인 그리고 평균이하를 자원이 적은 노인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대도시 노인집단과 소득이 80만원 이하의 지방 노인집단간에 가족결속도와 경제적 복지감과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표 3).

조사에 의하면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과 자원이

〈표 3〉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상관관계

경제적복지감	대 도시		지 방	
	100만원이상 (N=73)		80만원이하 (N=190)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소득적정도	.20*	.21*	.28***	.27***
경제적 만족도	.20*	.52***	.53***	.25***

* P < .05 *** P < .001

적은 지방 노인 모두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가족결속도와 소득적정도와와의 관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r=.20, p<.05$)과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r=.28, p<.001$)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별차이가 없었고 가족결속도와 경제적 만족도간에는 자원이 적은 지방노인($r=.53, p<.001$)과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r=.20, p<.05$)사이에 상관관계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결속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보다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더 의존적이고 정서적 지원과 도움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ercier & Powers, 1984; Solomon, 1975). 도시 노인들은 농촌 노인들보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고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자녀에게 덜 의존적이어서 도시 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부모 자녀간의 질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ercier, Paulson & Morris, 1988).

김태현(1994)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가족간의 결속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빈곤은 오랫동안 경험해온 것이므로 경제적 문제는 체념하고 오히려 가족간의 결속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부부간의 가치일치, 자원적정도와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Slusher, Helmick과 Metzen(1983)에 의하면 부부간에 가치가 일치할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높으며 자원적 정도는 남편의 경제적 복지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치일치는 아내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주부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다.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계도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과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이나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 모두 내적통제성이 클수록 소득정도를 더 높게 인식했으며 경제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과 소

극적정도의 관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r=.21, p<.05$)과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r=.27, p<.001$) 모두 약한 정적관계가 나타났고 내외통제성과 경제적 만족도 관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r=.52, p<.001$)이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r=.25, p<.001$)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은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에 비해 정보나 자원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적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내적통제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통제능력이 강한 노인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려는 동기가 강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족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여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은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과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보다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에게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반면 내외통제성은 자원이 적은 지방 노인보다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에게 더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3. 경제적 복지감에 관련된 변수간의 인과적 관계

3.1 경로모형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전에 변수간에 다중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 변수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기초로 하여 전체모형, 대도시 모형, 지방모형 각각에 대한 경로 분석시 사용 될 기초모형을 선정하였다(표 5).

3.2 경로분석

1) 연구모형의 소개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PRELIS(ver. 1.8)와 LISREL7(ver 7.12)을 이용하였다. 경로도에서 본 연구모형은 FULL MODEL의 특수한 경우이다. 측정변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성별	-													
2. 연령	-.14**	-												
3. 자녀수	-.01	.12**	-											
4. 가족형태	.27***	-.05	-.05	-										
5. 배우자유무	.38***	.25***	.01	.55***	-									
6. 교육수준	-.30***	-.30***	-.21***	-.15**	-.31***	-								
7. 종교	.20***	-.04	-.08*	.05	.05	.11*	-							
8. 소득	-.07	-.16***	-.16***	-.14**	-.09*	.50***	.23***	-						
9. 직업	.17***	.38***	.01	.09*	.24***	-.18***	.09*	-.05	-					
10. 건강	.09*	.19***	.03	.02	.09*	-.27***	-.06	-.20***	.20***	-				
11. 가족결속도	.04	-.15***	-.06	-.09*	-.10*	.18***	.20***	.27***	-.11**	-.14**	-			
12. 내외통제성	-.23***	-.17***	-.01	-.05	-.11**	.26***	.02	.26***	-.27***	-.31***	.22***	-		
13. 소득적정도	.01	-.17***	-.05	-.08*	-.09*	.28***	.18***	.53***	-.23***	-.24***	.30***	.29***	-	
14. 경제적만족도	-.09*	-.16***	-.07	-.15***	-.17***	.37***	.23***	.48***	-.20***	-.29**	.44***	.37***	.63***	-

*P < .05 **P < .01 ***P < .001

〈표 5〉 경로모형의 단계별 회귀분석

모형	N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전체 노인	409	가족결속도 R ² = .12, F = 5.69***	소득, 종교
		내외통제성 R ² = .21, F = 10.97***	성별, 소득, 직업, 건강, 가족결속도
		경제적복지감 R ² = .42, F = 23.97***	성별, 교육, 종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가족결속도	소득
대도시 노인	126	가족결속도 R ² = .21, F = 3.23***	소득
		내외통제성 R ² = .37, F = 6.36***	성별, 종교, 직업, 건강
		경제적복지감 R ² = .49, F = 9.17***	소득,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가족결속도	종교, 직업
지방 노인	283	가족결속도 R ² = .12, F = 3.92***	종교, 직업
		내외통제성 R ² = .19, F = 5.85***	성별, 소득, 직업, 건강
		경제적복지감 R ² = .43, F = 17.06***	성별, 교육, 소득, 직업, 건강,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가족결속도	가족결속도, 내외통제성

***P < .001

수 x_i , y_i 와 이론변수 η 로 구성된 모형이다. LISREL의 SUBMODEL 3A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외생변수간의 공분량을 나타내는 Φ 행렬이 측정변수 x_i 간의 공분산행렬이 된다. 따라서 직접 추정되는 미지수는 아니다.

직접 추정되어야 할 특장수 행렬은 $A, B, \Gamma, \Psi, \theta, \epsilon$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ta = B \eta + \Gamma x + \zeta \text{ ————— ①}$$

$$= (I - B)^{-1} \Gamma x + (I - B)^{-1} \zeta \text{ ————— ②}$$

LISREL에서는 각 방정식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정하여 직접적으로 각 계수들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식 ②와 같은 형태는 단지 부풀에 불과하다.

2) PRELIS 및 LISREL 입력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12문항이며, 적어도 한 문항에 대해서 MISSING VALUE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모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총 표본수는 409(대도시: 126, 지방: 283)개였고, 이론변수 가족결속도,

내의통제성, 경제적 복지감은 각각 3개, 1개, 2개의 측정변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리커트 척도는 서열(ordinal)척도이며, 가변수 형태는 명목(nominal)척도이다. LISREL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등간(interval)척도 이어야 한다. 서열이나 명목척도를 LISREL로 직접 계산하는 것, 공분산 혹은 피어슨 상관행렬을 직접 계산하는 것, 아울러 이러한 행렬을 ML법으로 분석하는 것 모두 LISREL을 이용함에 있어 방법론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PRELIS로 먼저 polychoric 상관행렬과 근사적(asymptotic) 공분산행렬을 구하여 이를 WLS(weighted least squares)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분석결과

표 6, 7, 8은 분석될 polychoric 상관행렬이다.

분석결과 모델의 부합도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이제곱치(χ^2),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원소간 평균차이(RMR), 모델의 안정성지수, 결정계수에 의해 전체, 대도시, 지방모형 모두 모델 부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의 LISREL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결속

<표 6> Polychoric 상관행렬(전체노인)

	ADEQ	DEGR	COMM	AFFE	VIEW	SATI	SEX	EDUC	RELI	INCO	EMPL	HEAL
ADEQ	1.000											
DEGR	.311	1.000										
COMM	.385	.150	1.000									
AFFE	.291	.164	.743	1.000								
VIEW	.264	.243	.618	.717	1.000							
SATI	.626	.334	.441	.387	.369	1.000						
SEX	.011	-.312	.052	.084	-.024	-.117	1.000					
EDUC	.332	.313	.107	.067	.210	.375	-.470	1.000				
RELI	.240	.032	.297	.271	.187	.307	.306	.218	1.000			
INCO	.604	.272	.388	.275	.266	.522	-.114	.520	.335	1.000		
EMPL	.338	.362	.078	.126	.179	.250	-.285	.285	-.148	.065	1.000	
HEAL	-.277	-.351	-.076	-.155	-.114	-.332	.128	-.289	-.074	-.269	-.296	1.000

〈표 7〉 Polychoric 상관행렬(대도시노인)

	ADEQ	DEGR	COMM	AFFE	VIEW	SATI	SEX	RELI	INCO	EMPL	HEAL
ADEQ	1.000										
DEGR	.277	1.000									
COMM	.439	.241	1.000								
AFFE	.439	.220	.867	1.000							
VIEW	.240	.267	.677	.785	1.000						
SATI	.625	.536	.312	.415	.383	1.000					
SEX	-.127	-.380	.097	.172	.175	-.256	1.000				
RELI	.256	.224	.143	.111	-.049	.243	.307	1.000			
INCO	.795	.336	.417	.371	.217	.448	-.245	.216	1.000		
EMPL	.378	.430	.075	.083	.106	.301	-.196	-.034	.470	1.000	
HEAL	-.323	-.408	-.183	-.228	-.064	-.316	.272	.133	-.181	-.365	1.000

〈표 8〉 Polychoric 상관행렬(지방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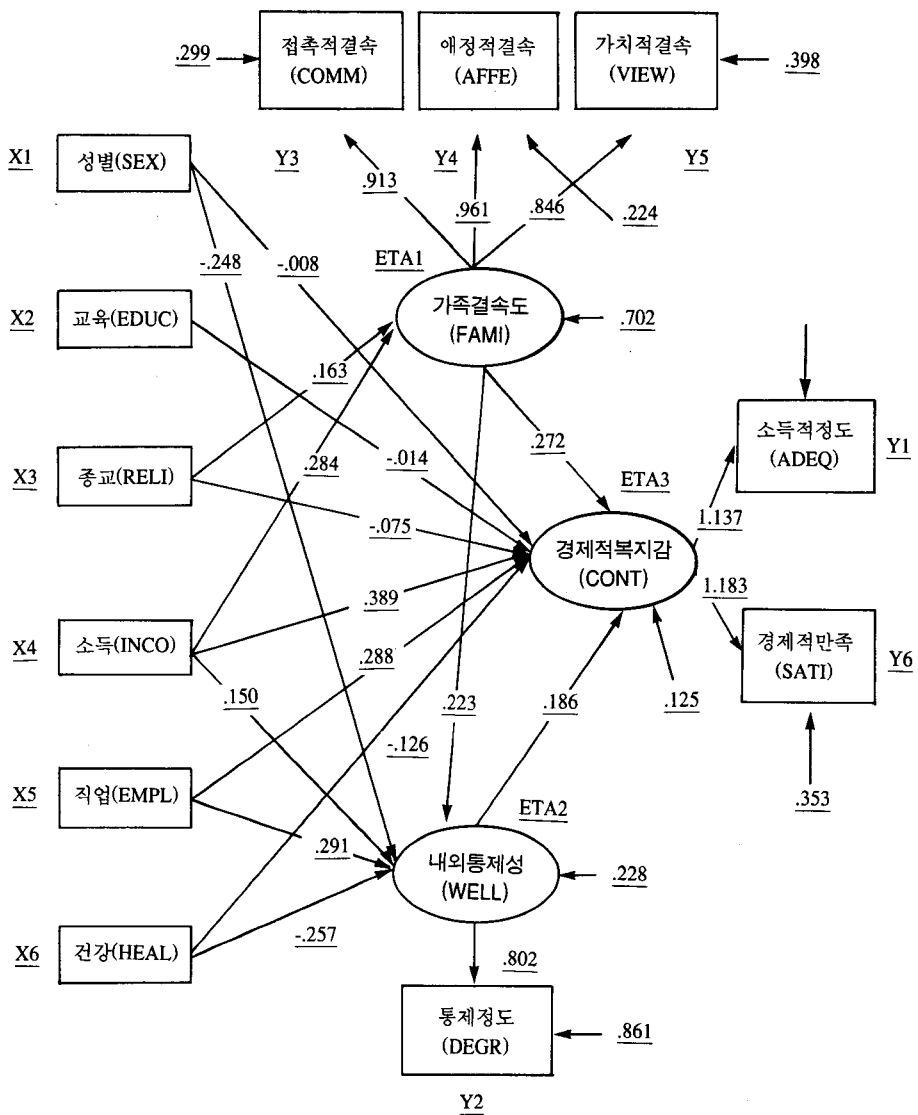
	ADEQ	DEGR	COMM	AFFE	VIEW	SATI	SEX	EDUC	RELI	INCO	EMPL	HEAL
ADEQ	1.000											
DEGR	.322	1.000										
COMM	.351	.077	1.000									
AFFE	.224	.119	.689	1.000								
VIEW	.258	.190	.570	.679	1.000							
SATI	.631	.222	.487	.371	.336	1.000						
SEX	.066	-.293	.024	.046	-.133	-.061	1.000					
EDUC	.264	.226	.062	.010	.173	.298	-.560	1.000				
RELI	.222	-.077	.327	.318	.239	.319	.304	.157	1.000			
INCO	.542	.208	.329	.199	.187	.550	-.096	.363	.340	1.000		
EMPL	.355	.383	.124	.168	.285	.265	-.314	.386	-.152	.045	1.000	
HEAL	-.248	-.303	.011	-.106	-.086	-.334	.064	-.238	-.130	-.258	-.324	1.000

〈표 9〉 모델의 부합도

모 델	자유도	χ^2	P값	GFI	AGFI	RMR	안정성 지수	측정모델 결정계수
전 체	27	44.89	.017	.990	.972	.045	.146	.961
대 도시	26	37.05	.074	.980	.949	.079	.271	.996
지 방	29	49.57	.010	.984	.956	.054	.126	.947

도는 소득과 종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소득이 높고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높은 노인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도리어 자

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접촉빈도도 높아 가족간에 애정적 유대감이 강화 될 수 있다. 김수연(1988)은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선택적인 생활환경으로서 생활만족도뿐 아니라 가족의 결속도



〈그림 1〉 전체 노인의 경로모형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내외통제성은 직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이 건강, 성별,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은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가족결속도를 경유한 간접효과 까지 가지며 종교는 가족결속도를 통해 내외통제성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직업이 있고 건강할수록, 소득이 높은 남자 노인일수록 내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노인에게 경제력을 제공할뿐 아니라 유용감과 자신감을 주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며(김태현, 1994)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노인이 가족결속도가 높고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간의 결속도 강화되어 통제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소득이 가장 크며 직업, 건강, 종교,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남자 노인 일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직업, 소득, 건강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의존도와 활동수준 및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원으로써 경제적 복지감에 기여 한다고 볼 수 있다. Liang(1982)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경제생활에 더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생활 만족도는 역관계를 갖는다는 결과(McClelland, 1982)를 볼 때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경제적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에 의해 측정되는 경제적 복지감은 내외통제성 보다 가족결속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 두 매개변인 모두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표 10).

가족결속도 이론변수는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가치적 결속의 세가지 측정변수에 의해 설정 되었으며 애정적 결속이 가장 크게 가족결속도를 설명하고 있다(그림 1). 가족결속도는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쳐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결속도는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내외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경제적 욕구 및 기대를 충족시켜 경제적 복지감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간의 정서적 애정적 유대감은 노인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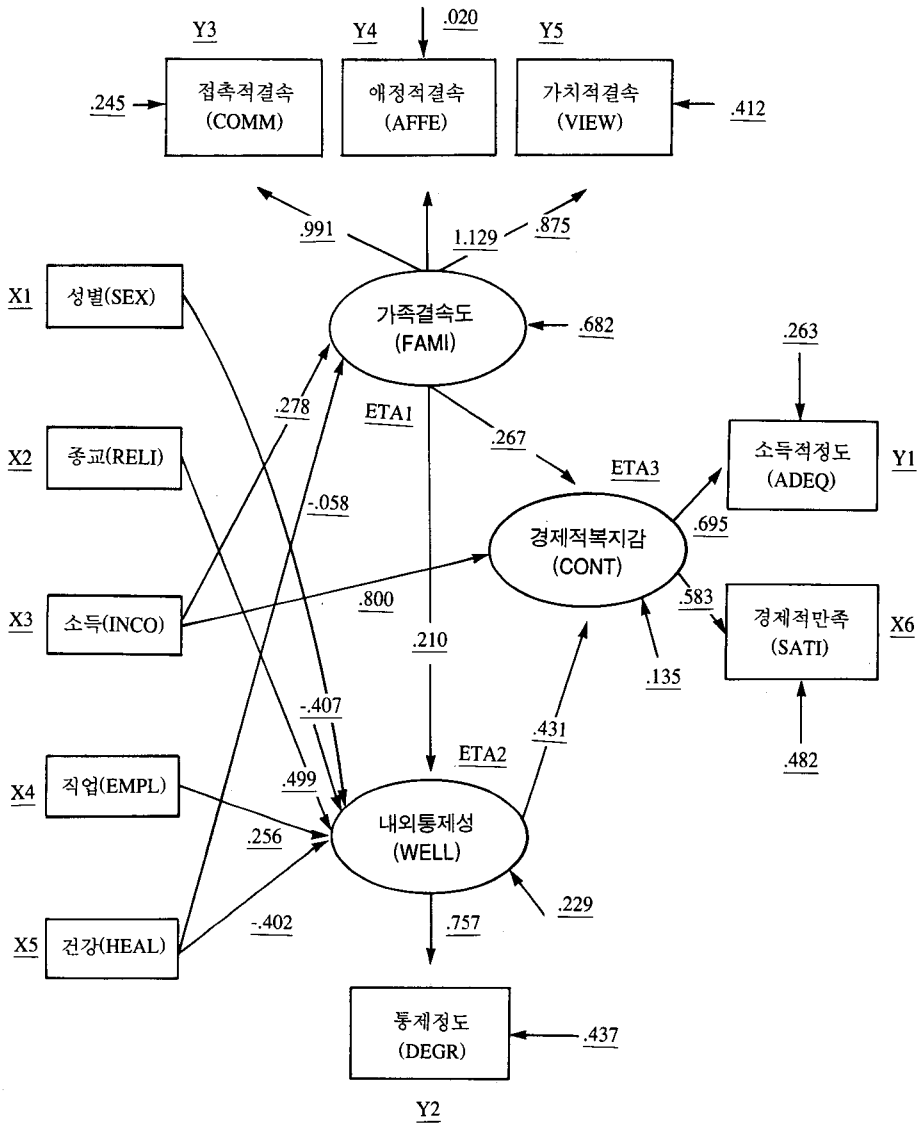
〈표 10〉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 관련변수 인과효과

	전 체 집 단			대 도 시 집 단			지 방 집 단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 별 (γ)	-.008	-.046	-.054	.000	-.176	-.176	.061	-.041	.02
교 육 (γ)	-.014	.000	-.014	-	-	-	.016	.000	.016
종 교 (γ)	.075	.051	.126	.000	.215	.215	.000	.103	.103
소 득 (γ)	.389	.047	.436	.800	.100	.900	.440	.035	.475
직 업 (γ)	.288	.054	.342	.000	.110	.110	.288	.157	.445
건 강 (γ)	-.126	-.048	-.174	.000	-.194	-.194	-.092	-.046	-.138
가족결속도 (β)	.272	.042	.314	.267	.090	.358	.259	.000	.259
내외통제성 (β)	.186	.000	.186	.431	.000	.431	.243	.000	.243

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내적통제 능력을 유지, 발달 시키고 간접적으로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결속도는 노인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역

할을 하여 경제적으로 복지감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관계를 보



〈그림 2〉 대도시 노인의 경로모형

면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경제적 복지감간에 영향력 있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소득, 직업과 같은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와 자녀간의 가족관계와 개인의 내적 통제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도시 노인의 가족결속도는 소득과 건강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즉 소득이 높은 건강한 노인이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 소득과 건강은 중요한 경제적, 신체적 자원으로서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는 대도시 노인의 내외통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다음으로 성별, 건강, 그리고 직업이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가족 결속도를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며 소득은 가족결속도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미치고 있다. 직업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건강한 남자 노인일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종교참여도가 높아지고 종교는 노인의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므로(김태현, 1994) 대도시 노인들에게 종교활동은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관계망을 형성하여 정신적 위안을 얻고 이것이 노인의 통제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도시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을 결정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소득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가족결속도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도 미치고 있다. 즉 대도시 노인에게 소득은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 기여 할 뿐 아니라 가족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 노인의 가족 결속도도 애정적 결속이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가족간의 결속감은 노인의 내적통제 능력을 유지, 강화 시키고 경제적 복지감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대도시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경제적 만족도 보다 소득적정도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며 통제정도에 의해 측정되는 내외통제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에 의한 직접효과가 가족결속도가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내외통제성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합친 값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2, 표 10). 즉 대도시 노인의 내적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적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도시 노인은 지방 노인에 비해 자원이 풍부하므로 개인의 통제능력이 더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 노인의 경우도 전체 노인과 마찬가지로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이 경제적 복지감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인의 가족결속도에는 종교와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이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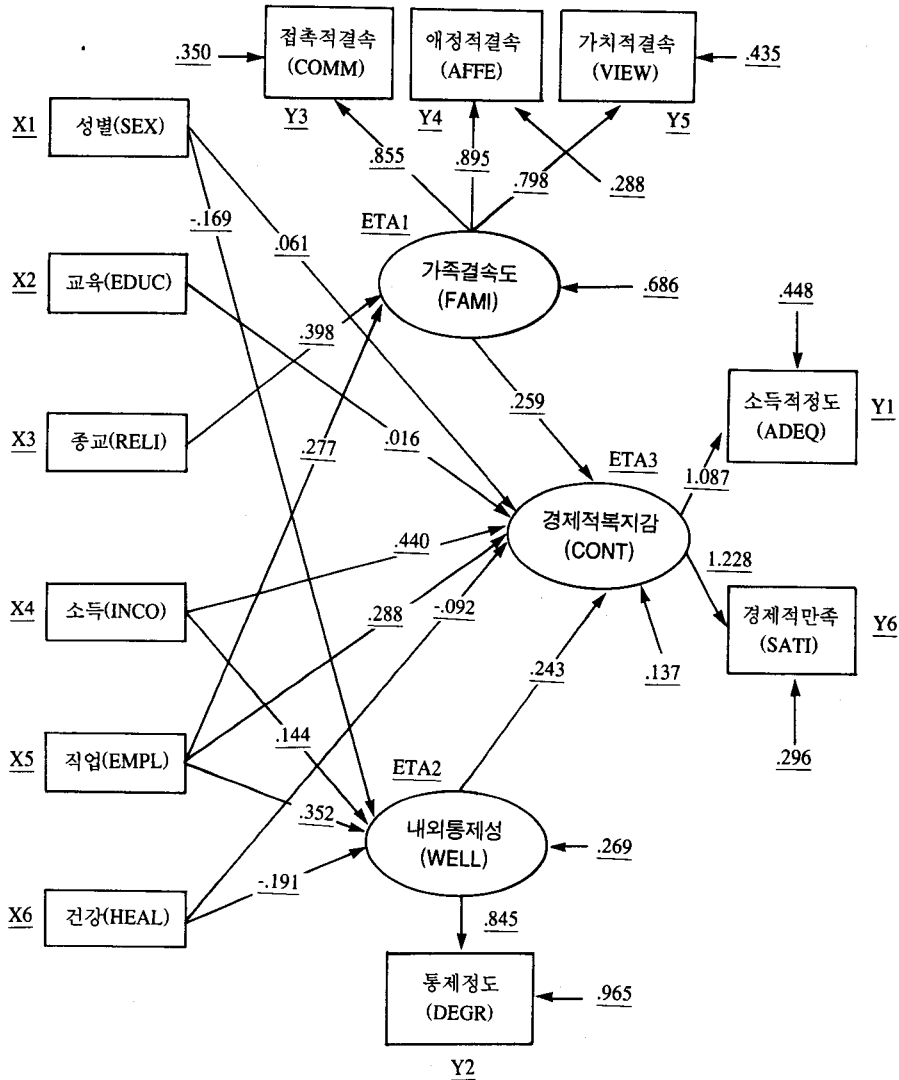
내외통제성은 직업, 건강, 성별 그리고 소득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고 소득이 높은 건강한 남자 노인일수록 내적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방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소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직업, 건강, 종교, 성별,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10). 즉 직업과 소득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건강한 여자 노인일수록 경제적 복지감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중 직업은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효과와 더불어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갖는다.

전체노인과 대도시노인과 달리 지방노인들에게 가족결속도는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소득적정도 보다 경제적 만족도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며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 두 매개변인에 의해 직접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V. 결론

본 연구는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노년기에 노인의 사회심리적 환경인 가족 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이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



〈그림 3〉 지방노인의 경로모형

약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문제 분석을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결속도가 높고 내적 통제 능력이 강한 노인

집단이 가족 결속도가 낮고 외적 통제 능력을 가진 노인 집단보다 경제적 복지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원이 많은 대도시노인과 자원이 적은 지방노인

모두 가족 결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내적 통제성이 클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결속도는 자원이 많은 대도시노인보다 자원이 적은 지방노인에게 더 높은 정적 관계를 가진 반면 내외 통제성은 자원이 적은 지방노인보다 자원이 많은 대도시 노인에게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면 가족결속도는 소득과 종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내외통제성은 직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건강, 성별, 소득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가족결속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미쳤다. 소득이 높고 종교가 있는 가족의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한 남자노인일수록, 직업이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의 내적통제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복지감은 소득과 직업, 건강, 종교, 성별, 교육수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통제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결속도는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내외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쳤다.

대도시노인과 지방노인의 인과모형을 비교해 보면 가족결속도는 대도시노인은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지방노인은 종교와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 건강은 대도시노인과 지방노인의 내외통제성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대도시노인의 내외통제성에 소득은 지방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복지감은 대도시노인과 지방노인 모두 소득이 직접, 간접효과를 합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도시노인의 경우 소득만이 직접효과를 갖는 유일한 변수였으며 지방노인에게서는 소득외에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이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내외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쳤다. 종교는 가족결속도를 통한 경제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만 미쳤다.

대도시노인과 지방노인 모두 애정적결속이 가장 크게 가족결속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대도시노인의 가족결속도는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내외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나 지방노인의 가족결속도는 내외통제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 각각 경제적 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경제적 복지감간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소득의 영향력과 노인의 사회심리적 환경 변인으로서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노년기에 당면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 문제는 노인들에게 주관적 평가인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에 객관적 지표인 소득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가족 관계가 원만할수록,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방 노인의 가족결속도가 경제적 복지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대도시 노인의 경우 노인의 심리적 자원인 내적 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 결속도와 내외 통제성과 같은 노인의 사회 심리적 자원이 노인의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보상하여 경제적 복지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년연령 연장이나 연금제도의 혜택 및 취업의 기회 제공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확대실시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소득의 확보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으므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족 상담자나 교육자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환경인 가족결속도와 내외통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과 기대감을 감소시키고 능동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결속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내적통제감을 강화 시킬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대도시 노인에 비해 가족간

의 유대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지방 노인을 위해서는 가족결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이 요구되는 대도시 노인에게는 내적 통제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도시 노인과 지방 노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힌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과 사회적 환경요인과의 인과관계는 의미있는 결과이나 내외통제성의 측정변수가 적은점과 조사대상 지역이 대도시가 지방에 비해 적고 지방도 주로 경북 북부 지방에 치우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의 측정변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선정하여야 하겠다. 또한 주관적, 질적, 지속적 특성을 지닌 가족관계와 성격 그리고 경제적 복지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연구와 장기종단법에 의한 연구가 보다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해답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구자순(1988). 한국노인문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 192-207.
- 2) 김수연(1988). 노인종교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55-68.
- 3) 김태현(1990).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 4) 김태현(1994). 노년학. 학지사.
- 5) 김현화·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207-228.
- 6) 박재간(1983).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7)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8) 서병숙(1988). 노후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9) 서병숙(1993). 노인연구. 교문사.
- 10)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11)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5-112.
- 12)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13) 최정혜(1990).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19-133.
- 14) 한국꺄첩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15) Ackerman, N.& Paolucci, B.(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16) Andrewes, F.M.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17) Baker, E.K.(1976).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B), 4748.
- 18) Bengtson, V.L. & Cultler, N.E.(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 Y: Van Nostrand Reinhold.
- 19) Bengtson, V.L. & Schrader, S.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Mangen & W.A. 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20) Bowlby J.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21) Campbell, A. & Converse, P.E.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22) Cicirelli, V.G.(1980). Relationship of family background variables to locus of control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5(1), 108-114
- 23) Costs, P.T. & McCrae, R.R.(1983). Contribution of persona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 stress and aging. In H.I. McCubbin, M.B.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The Howorth Press, 157-174.
- 24) Danes, S.M., Rettig, K.D. & Bauer, J.W.(1991).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situation. In S. M. Danes(Ed.) *Proceeding of the 1991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5)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26) Dillard, B.L.(1987).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 27) Fletcher, C.N.& Lorenz, F.D.(1985). Structural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economic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3), 333-345.
- 28) Fowler, E.S(1972).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family.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29) Kivett V.A.(1976). Psychological and social predictors of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 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5B) 2481.
- 30) Krause, N.(1986). Stress and coping: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41(5), 617-622.
- 31) Lefcourt, H.M.(1976). *Locus of control*.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32)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5, 36 (1).
- 33) Liang, J. & Fairchild, T.J.(1979). Relative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financial adequacy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4, 746-759.
- 34) Liang, J. & Kahana, E. & Doherty, E.(1980). Financial well-being among the aged: A Further elabo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5(3), 409-420.
- 35) McClelland, K.A.(1982). Self-con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integration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7(6).
- 36) Medley M.(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5.
- 37) Mercier, J.M, Paulson, L. & Morris, E.W.(1988). Rural and urban elderly: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37(1), 68-72.
- 38) Mercier, J.M. & Powers, E.A.(1984). The family and friends of rural aged as a natural support syst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Vol. 39).
- 39) Ness, A.J. & Williams, F.L.(1991). Satisfaction with consumption as influenced by perceived control and family economic activities. In J. W. Bauer(Ed), *Proceedings of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0) Olson, D. Sprenkle, H. & Russel, C.S.(1976).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 41) Palmore, E.(1979). Stress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4 (16), 841-851.
- 42) Pal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8-79.
- 43) Pigou, A.C.(1938). *The Economics of welfare* (4th ed) London: Mac Millan,
- 44)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45)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whole No. 609).
- 46) Solomon, G.(1978). Patterns of social interaction among rural elderly widows and their adult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47) Streib, G.F & Beck, R.W.(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37-956.
- 48) Strumpel, B.(1973). E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B.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erspets*. Philadelphia: Lippincott, 69-125.
- 49) Sumarwan U. & Hira &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14(4), 343-364.
- 50) Van Raaij, W.F.(1981). Economic psycholog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 1-24.
- 51) Walson, C.O. & Fitzsimmons, V.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14(3) 193-214
- 52) Weckstein, H.(1962). Welfare criteria and changing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 133-153.
- 53) Williams, F.L, Nall, M. & Deck, P.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7.
- 54) Winter, M. Bivens, G.E. & Morris, E.W.(1984).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chang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399-417.
- 55) Wolk, S & Kurtz, J.(1975). Positive adjustment and involvement during aging and expectancy for internal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2), 173-178.
- 56) Yuen, J. C.(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57) Ziegler, M. & Reid, D.W(1983). Correlates of changes in desired control scores and in life satisfaction scores among elderly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 135-146.